



QR코드를 찍어주세요

# KC Newsletter vol.19



## Networks

[KC그린홀딩스] 모범 납세자상

[Korea Solar Holding Company] 김해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소 CDM 사업 UN등록

[KC 코트렐] 하동군 태양광 사업개발 양해각서 체결

[KC코트렐] 요르단 희망의 빛 나눔 사업

[안성유리] 승진자 사령장 수여식

[NOL-TEC] 이사회 개최

[KC에너지아] 사무실 이전

[KC환경서비스, Veolia ES & KC EcoCycle] 화재 건



## Customers

한전, 해외 송배전 시장서 신호탄  
두산중공업, 인도 발전설비업체  
'AE&E 첸나이웍스' 인수

## Economic Trend

환율  
원자재

## KC Edition

QR코드란?

사내동호회 소개편 ②  
안성유리공업 "핑우회"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 [KC그린홀딩스] 모범 납세자상

지난 3월4일 KC그린홀딩스(주)가 마포세무서에서 열린 '제45회 납세자의 날'(3.3) 기념식에서 모범 납세자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 모범 납세자는 총 526명으로 KC그린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는 보기 드문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이 날 행사에는 김정완 전무(KC그린홀딩스 CFO)가 대리 수상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전국 세무관서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1주 이상 공개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면밀한 검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명백한 조세포탈 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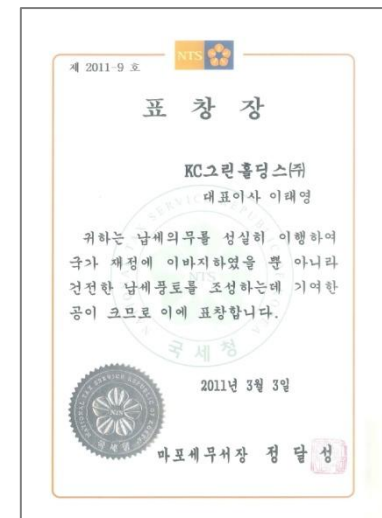
\*납세자의 날이란?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납세협력에 감사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KC그린홀딩스 재경팀 조용이 과장



▷ 제45회 납세자의 날  
관련사진



▷ 표창장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Korea Solar Holding Company] 김해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소 CDM 사업 UN등록

2008년 남동발전, 김해시청, KC 코트렐이 공동으로 투자, 설치, 운용중인 김해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소가 에너지관리공단의 CDM운영기구의 평가 수행으로 UN으로부터 CDM 사업 등록 결정되었습니다.

김해시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동중인 정수장 시설의 유휴부지에 1.5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2,045MWh의 전력 생산과 더불어, 약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입니다.

KC코트렐 태양광사업팀  
이은정(eunjung@kc-cottrell.com)



- 사업주: 코리아솔라홀딩컴퍼니(주)
- 사업목적: 청정에너지 생산
- 사업부지: 경상남도 김해시 명동정수장 내
- 태양전지: Schott 175Wp \* 8788pcs
- 인버터 : SMA 250 \* 6대
- 시설규모: 1.54MWp
- 준공일자: 2008년 06월
- 연간전력생산량 : 2,079,000 kWh
- 연간CO2저감량 : 1,355 Ton
- 특징
  - 국내 최초의 지자체 및 민간기업 Partnership에 의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Solar park 개념의 환경친화적 발전소 설계

## [KC 코트렐] 하동군 태양광 사업개발 양해각서 체결

지난 2011년 2월 9일 하동군, 남부발전과 함께 하동군 태양광 자원 공동 개발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 발전"과 "국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KC코트렐은 태양광 자원조사, 인허가,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하동군은 인허가 및 주민 협력 등 전반적인 행정지원과 사업개발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 지원, 남부발전은 학교, 공공기관 건물 및 하동군이 추천하는 시설물의 태양광 사업개발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 관한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KC코트렐 이태영 사장님, 하동군 조유행 군수, 남부발전의 남호기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KC코트렐 태양광사업팀  
이은정(eunjung@kc-cottrell.com)



MOU체결식▶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코트렐] 요르단 희망의 빛 나눔 사업  
(태양광 가로등 설치작업)

KC코트렐은 지난 1월 29일~ 2월 3일 한국남부발전(주), 현대중공업(주)과 공동으로 요르단의 천막 생활을 하는 베두원족에게 '홈 일체형 태양광가로등' 설치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주) 요청으로 한국방송(KBS) 『체험 삶의 현장』 프로그램에서 『희망의 빛 나눔 사업』의 요르단 현지 홈일체형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촬영하여 2월 24일(목)에 방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웹사이트 '체험 삶의 현장' 다시보기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월 3일 점등식에는 요르단 왕자와 남부발전 전무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 [안성유리] 승진자 사령장 수여식

지난 2011년 2월 28일 안성유리공업(주)은 승진자에 대한 사령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수여식에서 이석구 상무는 승진자에 대한 축하와 함께 "승진은 또 다른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더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승진자\*

- |             |                |
|-------------|----------------|
| 1. 기술 연구소   | 대리 황태선 과장에 임함. |
| 2. 기술 연구소   | 계장 안호림 대리에 임함. |
| 3. 생산팀 제조   | 계장 이광수 대리에 임함. |
| 4. 생산팀 기술지원 | 사원 윤여진 주임에 임함. |
| 5. 생산팀 기술지원 | 사원 김성규 주임에 임함. |
| 6. 재무관리팀    | 사원 이문희 주임에 임함. |



▲ KC코트렐 로고가 보이네요 ^^



▷ 요르단 '희망의 빛 나눔사업' 설치 현장



▲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1. 승진자 황태선과장의 6명, 2. 사령장 수여, 3. 이석구상무 축하인사, 4. 사령장수여기념단체촬영

KC코트렐 태양광사업팀  
이은정(eunjung@kc-cottrell.com)

안성유리공업(주) 경영지원팀 박인환과장  
(ihpark@asglass.co.kr)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 [NOL-TEC]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24~25 이틀에 걸쳐 미국 Minnesota주의 Lutsen에서 NOL-TEC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는 CEO/ Mr. Wayne Johnson(director), COO/ David Van Arnham, 이태영 사장님(director), 서동영 전무(director), 박승원 전무, 강준기 팀장이 참석하였으며,

- 2010 NTS 경영성과 및 재무제표 Review
- 2011 NTS business plan review
- KCGH network company들의 2010년 경영성과 및 2011년 경영 계획 소개
- KCGH company들간의 협력방안 협의

에 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KC그린홀딩스 기획팀 강준기 팀장



▶ 이사회

### [KC에너지아] 사무실 이전

(주)KC에너지아는 지난 달 하기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 하였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02)2613-6779 (전화번호는 동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C에너지아 이유미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KC환경서비스, Veolia ES & KC EcoCycle]  
화재 건

최근 베올리아KC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KC 제조업 관련 관계사 여러분께 경각심과 주의를 요하는 의미에서 KC환경서비스와 Veolia ES & KC EcoCycle 에서 최근 일어난 화재 2건에 관한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아픈 경험이 KC관계사들의 화재예방 및 화재에 대한 대응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KCES 이정식 팀장)

## KC환경서비스

## ① 개요

2004년 10월 27일 05:30경 R/K폐기물처리 보관장에 적재폐기물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된 화재로 인하여 운전조정실 및 보관장이 전소된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관할 소방서에 긴급하게 화재 신고를 하고 사내 자위소방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당일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완전히 진압하였습니다.

## ②재해 손실

복구비만 4억 이상 넘게 투입되었고, 공장가동을 20일이 넘게 중지했습니다.

## ③재발 방지책

- 운영패턴의 변화와 적정 보관량의 유지로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의 압력에 의한 화재발생을 예방
- 불꽃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설치, 신속하게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 방화장비를 강화하여 운전실의 유리를 불에 견딜 수 있는 강화유리로 교체
- 방화벽을 설치하여 운전실을 보호하도록 하고,
- 운전실에 화염이 침입 시 근무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창문 쪽에 안전사다리를 설치
- 난연성, 발화하기 쉬운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질식효과가 높은 품소화 설비를 별도로 설치

이외에도 정기적인 소방훈련에 의하여 꾸준히 교육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폐기물공장의 칼라시트가 투톤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공장 쪽을 바라보았을 때 지난 화재사고를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아픈 경험이 KC관계사들의 화재예방 및 화재에 대한 대응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KC환경서비스 이정식 팀장(jsllee@kc-enviro.com)

## Veolia ES &amp; KC EcoCycle

## ①개요

2011년 2월1일 17시경 RDF/RPF 창고에서 인화성 물질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적재로 번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7명의 직원들이 공장에 있었으나 초기진화가 어려워 여주 소방서에 신고하고 당일 20시쯤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 ②재해 손실

RDF/RPF 창고 634.66 평방미터와 컨베이어 50MKRW급

## ③ 재발 방지책

- 보안 CCTV 설치
- 소화전 강화
- 야간 교대조 편성을 통한 경비근무

Veolia ES & KC EcoCycle 서정철 부장(jcsuh@veskc.com)



▷ KCES화재현장

▽ Veolia KC화재현장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한전, 해외 송배전 시장서 신호탄

## 카자흐스탄 1억 달러 규모 사업 수주

한전(사장 김쌍수)이 해외 송배전 시장에서 EPC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전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상사로 구성된 한전 컨소시엄은 23일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송전망공사와 변전소 현대화 EPC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인 카자흐스탄 송전망공사(KEGOC, 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운영을 맡고 있는 최대 국영 전력회사로 최근 낙후된 전력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송전망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17개 변전소의 노후 전력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전력분야 현대화 사업으로서 계약금액은 송배전 단일 사업으로는 대형 규모인 약 1억 달러에 달한다.

한전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서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EPC 역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음달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2013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AREVA, ABB 등 세계 유수의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한 한전 최초의 해외 송배전 EPC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전력회사인 한전과 카자흐스탄 현지 영업력과 우호 네트워크 기반을 가진 현대종합상사, 송배전 EPC 경험이 풍부한 현대엔지니어링 등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공동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송배전 분야 해외사업 진출의 모범사례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2001년부터 수행한 해외 송배전 컨설팅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매출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송배전 EPC사업에 진출했다.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비운영사업,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출처: 전력신문 강원영 기자>

## 두산중공업, 인도 발전설비업체 'AE&amp;E 첸나이웍스'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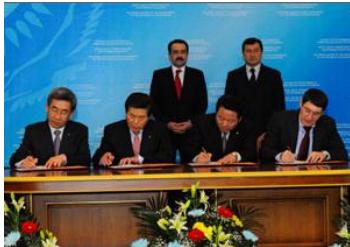
## 2050만 유로, 인도 발전설비 시장에서 수주경쟁력 제고

두산중공업은 최근 오스트리아 AE&E 그룹 채권단과 AE&E 첸나이웍스(AE&E Chennai Works)를 2050만 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E&E 첸나이 웍스는 인도 남부 첸나이 항구 인근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용 보일러 제조업체로서, 이번 인수는 향후 자국 발전산업을 육성하려는 인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인도에서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는 매년 25GW(한국 전체 발전용량의 1/3 수준)의 새로운 발전소가 새롭게 발주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발전시장의 40%에 해당될 정도로 큰 시장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994년 에사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시작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래 2004년 시파트 석탄화력발전소, 2007년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 그리고 지난해 라이푸르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한 바 있다.



▲ 한전,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상사 컨소시엄이 1억 원 규모의 카자흐스탄 송배전 사업을 수주, 23일 계약을 체결했다



▲ 인도 AE&E Chennai works



## 환율시장

3월 환율 전망, 달러/원 1115~1150원,상단저항선을 높이는 상승흐름

##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3월 달러/원 환율은 중동지역 정세 불안과 이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2월 중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였던 1130원대 진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가격에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 안전지대로 분류되기 어려워 외국인은 한국자산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3월 중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도 예정되어 있다. 중동지역 안정시 유가는 빠르게 급등세를 되돌리겠지만 WTI 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두바이유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2008년보다 높아진 환율로 인해 유가의 국내외 물가 영향력이 커져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외불안으로 환율 급등시 당국의 매도개입이 예상되고, 대규모 선박 수주에 따른 달러 공급, 그리고 중동발 불안이 미달러의 상승재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환율 상승을 제한할 요인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은 중동문제와 남유럽 국채 만기 집중, 일본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안, 미국 재정과 관련된 이슈 등으로 불안 요인들이 많이 안전자산 선호국면과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도 중동문제가 미국의 안보정책의 위험을 키워 미달러의 혼조세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환율의 흐름 자체가 복잡다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스위스프랑의 강세 지속을 예상하며, 미달러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만큼 크로스 환율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작년 5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환율을 짧은 시간내에 급등시킨 바 있으나 그와 같은 현상이 재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유로존 위기, 북한 관련 리스크 부각 이후 외국인의 원화 매수포지션 설정은 소극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물가수준 때문에 당국이 환율 급등을 좌시할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때 달러/원 환율은 1차 1130원, 2차 1140원을 테스트하는 상승 흐름을 전망한다.

&lt;뒷면에 계속&gt;



##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여기서 잠깐!!>

뉴스레터 2월호에서 예상환율은 1110~1140원이었으며, 신흥시장 인플레이 부담 속 외인 주식 매도와 월말 중동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상단선은 1140원에 근접한 1134원으로 연중 고점을 경신하였다. 다만 월초에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위안화 강세, 네고 등으로 1110원의 벽을 깨고 1102원으로 연중 저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2월호의 신뢰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삼성선물 2011.02.28 2011년 3월 금리 및 환율전망

by 정미영 Currency Analyst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 원자재 시장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열연] 포스코2분기 가격 인상 다시금 '주목'**  
 - 금융권 10만원 수준..철강업계 15만원 이상 전망  
 - 포스코, "아직 검토 전"..중순 이후 윤곽 드러날 듯

스틸데일리 기사요약 2011-03-04

포스코의 2분기 가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10만원 전후 인상을 점치고 있다. 철강업계는 포스코가 15만원 전후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예측이 분분하다. 그러나 금융권 철강업계 모두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원료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원가 부담이 크다. 그러나 2분기 원료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분기 철광석 석탄 등 원료가격의 윤곽이 드러나는대로 인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내 고로사들은 현 스폿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원가 상승분은 조강 톤당 17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사 모두 큰 폭으로 원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내부 원가절감으로 흡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2분기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원가 상승분을 고려 할 때 2분기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대우증권은 최근 리포트에서 포스코의 2분기 제품 가격 인상 폭을 톤당 10만원으로 예상했다. 또 인상시점은 5월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포스코의 2분기 가격 인상 폭을 12만원 전후로 예상하는 등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면 철강 유통업계는 "포스코의 2분기 가격 인상은 톤당 15만원~1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업계가 여의도 증권가보다 인상폭을 높게 전망하는 것은 국제 시장 탓이다. 일본 고로사들이 최근 2만엔(톤당 27만원) 인상을 발표한 데다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국 등 국제 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한국항열연코일에 대해 일본 고로사들은 최고 1,00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또 후판에 대해 톤당 300달러 인상안을 내놔다. 대폭적인 인상 계획을 시사한 것이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 할 때 포스코가 2분기 공급 가격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가격 인상은 아직 시기가 맑지 않다.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 때문이다. 정부가 주요 기업들에 가격 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포스코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어느정도 호응 할 것인가에 따라 가격 인상 여부와 폭 그리고 시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냉연]포스코 냉연SSC, 유통가 인상 "고전"**

- 수요 및 가수요 부진으로 유통가격 2월 가격 유지"3월내 반드시 인상"  
 포스코 냉연스틸서비스센터(SSC)들이 유통가격 인상에 고전하고 있다. 포스코 냉연SSC들은 3월 초부터 냉연재는 3만원, 도금재는 5만원 유통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가 유통향으로 공급되는 시장할인을 3월부터 폐지했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냉연재는 3만원, 도금재는 5만원 수준이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유통가격 인상이지만 시장 반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통가격 인상에 실패하면서 현재 포스코산 유통가격은 냉연강판(CR)이 톤당 108만원, 산세강판(PO)은 100만원, 용융아연도금강판(GI)은 117만원,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은 110만원 등으로 2월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포스코 냉연SSC들은 수요기반이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강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건재, 가전 등의 수요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분기 포스코의 가격인상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요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10년 상반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포스코 냉연SSC들의 설명. 포스코 냉연SSC들은 현재 유통가격 인상에 고전 중에 있지만 3월 내에 유통가격 인상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포스코 냉연SSC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와는 달리 시중 가수요도 미미해 유통가격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고가 적어 기존 할인을 받아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형강] H형강 3월 추가 인상 가능성 커져**

- 2월 한달간 국내 철스크랩 톤당 3만 5,000원 상승

- 철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제품가격 상승요인 발생

-H형강의 경우 할인율 축소를 통한 제품가격 인상 예상

스틸데일리 기사요약 2011-02-24

H형강 가격이 3월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제품가격 상승 요인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2월 한달 동안 국내 철 스크랩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가격 인상 폭은 톤당 3만 5,000원이다. 국내 제강사들은 2월 첫째 주 철 스크랩 구매가격을 톤당 2만원 인상했으며, 둘째 주에는 톤당 1만 5,000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따라서 H형강 제품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할인 폭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2월 가격 인상 시 중소형 H형강의 베이스가격을 톤당 102만 5,000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장 적용가격은 톤당 98만 5,000원이다. 따라서 톤당 4만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H형강 메이커의 3월 가격 인상발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철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제강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STS] [STS동향] "전 세계 3월 일제히 인상"**

스틸데일리 기사요약 2011-03-05

3월 첫째 주 스테인리스 유통 시장은 대다수의 업체들이 판매단가 조정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동향을 살피는 한 주를 보냈다.

**[국내동향] "대형 유통상 3월 판매단가 상향 조정 초입기"**

3월 첫째 주 유통 시장의 분위기는 월 초라는 특징 때문에 가격문의는 많지만 실제 거래는 필요량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물량의 경우는 구 단가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비는 사이즈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낱장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304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향평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상 기준 304 열연의 판매단가는 kg당 4,200~4,300원대, 304 냉연의 거래가격은 4,250~4,420원대로 업체마다 결제조건이나 거래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형 코일센터들이 판매단가를 상향 조정할 이유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 여기에 해외 오퍼가격 역시 강세장을 지속하면서 국내 대리점과 수입업체 대부분이 업체별로 가격인상에 나선 것. 유통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은 304 열연의 경우 kg당 4,250원 수준, 304 냉연의 경우 kg당 4,300~4,350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1



“KC뉴스레터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스레터 편집팀에서 QR코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QR코드는 KC그린홀딩스 홈페이지 뉴스레터 메뉴로 연결되는 서비스이며, QR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격자무늬 사각형 코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각종 광고물이나 홍보 전단 등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QR코드(Quick Response)다.

QR코드는 일종의 2세대 바코드로 선과 숫자가 아닌 ‘그림’으로 이뤄져 있다. 일본에선 90년대 중반에 등장했지만, 한국에선 스마트폰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동영상, 인터넷 주소, 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QR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제는 대부분의 광고나 제품 홍보에서 사각형 격자코드를 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이용자가 QR코드를 통해 바로 구매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도 산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 마케팅의 총아로 떠오른 QR코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QR코드 (Quick Response Code)

나온 연도 1994년  
개발자 일본 덴소웨이브  
저장용량 숫자 7089개,  
한자 1817개  
주요 기능 데이터 저장,  
고속 읽기

▷ 전광판, 건물벽, 명함인식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QR코드



#### QR코드는 무엇인가?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으로 차이는 격자무늬로 2차원이라는 점이다. 94년 일본의 덴소웨이브사가 물류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었다. 바코드가 숫자만 인식하는데 비해 동영상이나 지도, 인터넷 URL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QR코드의 모양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정사각형 평면 구조다. 구석에는 작은 사각형이 있다. 오른쪽 하단에만 사각형이 없다. 작은 사각형은 버전과 방향 정보 등을 담고 있다.

QR코드의 장점은 격자 모양으로 바코드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차원 바코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고 20자 이내의 숫자 정보만 담을 수 있다. QR코드는 같은 크기의 바코드에 비해 10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QR코드는 숫자만을 등록했을 경우에는 최대 7089자까지 담을 수 있고, 한자나 한글은 최대 1817자를 실을 수 있다. 일부 무늬가 손상돼도 인식이 가능하다.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1

최대 30%까지 모양을 바꿀 수 있어 코드 자체를 이용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QR코드에 상품이나 회사 로고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다. 여러 정보를 분할해 각기 다른 QR코드로 만들 수도 있고, 분할된 정보를 합칠 수도 있다. 인식 속도가 빠르며 정확도도 100%에 가깝다. 덴소웨이브사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 별도의 로열티나 기술료도 없다.

QR코드를 읽기 위해선 스마트폰에서 인식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야 한다. 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만 하면 자동으로 코드에 담긴 정보를 볼 수 있다. (에그몬, 스캐니, 네이버 등)  
QR코드에 담긴 정보는 바로 저장도 가능하다.

#### 어떻게 만드나?

QR코드를 만드는 것도 간단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에서 손쉽게 QR코드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code.dam.net](http://code.dam.net)), 가비아([www.gabia.com](http://www.gabia.com)), 스캐니([www.scany.net](http://www.scany.net)) 등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다.

#### 전망은?

QR코드의 적용 영역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QR코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설해 QR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굴뚝사업인 건설사들도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아파트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해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정도이다.

QR코드를 삽입한 책이나 매체도 출판됐다. 일각에서는 일회성이라는 논란도 분분하지만 그 편리성과 정보 함축력을 보면 주목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 KC그린홀딩스 웹사이트  
바로가기 QR코드입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hyunjoo@kcgreenholdings.com](mailto:hyunjoo@kcgreenholdings.com))



## 사내동호회 소개편 ② 안성유리공업 “핑우회”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2

안성유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

안성유리는 사내에 탁구, 등산, 낚시 3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안성유리 탁구 동호회 “핑우회”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 황태선입니다.

저희 핑우회는 1987년도부터 시작하여 24년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동호회로써 회원은 20여명 되며 매월 2회씩 정기모임을 가지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핑우회원들간의 게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호회와 친선게임도 가지면서 서로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탁구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친목을 위해 영화도 보고, 때로는 종목을 바꾸어 볼링을 치기도 합니다. ㅎㅎ



▲ 좌측부터 1. 2. 인근지역(입장) 탁구동호회와 친선경기, 3. 4. 핑우회 경기 모습



지난해에는 High 5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모임을 가지지 못했지만 2011년에는 좀 더 알찬 시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KC Green Holdings 관계사 중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사내에 탁구클럽이 있다면 친선게임도 가지자고 제안하고 싶네요.

정기적인 모임과 교류 전을 갖는다면 좀더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는 관계사가 되지 않을까요? ^^



▲ 좌측부터 1. 동호회원간의 기념촬영, 2. 경기모습, 3. 친목다짐회식, 4. 경기종목 변경 (볼링)